

시론



김선기

전남도립대 교양학부·문학평론가

외신이 평가한 尹의 초라한 성적

만나지 못하고 되돌아왔다는 것은 국민적 실망감을 더 키웠다.

그런데 이번에는 영국의 권위 있는 시사주간지인 윤석열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지난 25일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대통령은 기본을 배워야 한다(South Korea's president needs to learn the basics)'는 제목의 칼럼에서, 그는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정치적 스킬도 갖추지 못한 아마추어 같다고 지적했다.

이이 신문은 윤 대통령은 집권 전 정치 경력이 1년도 채 안 되는 걸출한 검사 출신이라고 소개하며, 대선 승리를 위해 내세웠던 '반(反)정치인' 특징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를 권좌로 이끈 '기성 정치 혐오' 성향과 맞물려 대통령으로서 그의 정치 스킬 부족은 이제 골치거리가 됐다고 평가했다.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리고 남을 위한 치욕적인 보도다.

또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여론조

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에 머문 상황도 언급했다. 많은 사람이 교육과 경제 정책에 반감하고 있는데 특히 정책을 제시하는 윤 대통령의 고압적인 방식을 국민이 싫어한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다. 출근길에 기자들과 질의응답(도어스테핑)을 하면서 열린 태도를 보여주려고 한 시도는 오히려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보이게 했다는 게다. 이 대목은 국내 언론과 같은 시각이다.

특히 필자가 눈여겨본 지점은 윤 대통령이 지지를 추락 이후 "국민 뜻을 따르겠다"는 발언 부분이다. 이 신문은 "대통령은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끄는 사람이다. 어려운 선택을 하고, 자신의 결정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 일례로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추진 하면서도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질었다. 그렇다. 이코노미스트가 조목조목 지적한 것

에 대해 크게 공감한다.

주지하다시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20%대로 하락했다. 추세를 보면 하락보다는 폭락이 적확한 표현이겠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폭락 원인은 복합적이다. '처음 해 보는 대통령'이라든지, '지지를 별의 의미가 없다', '전 정권 장관 훌륭한 사람됐다' 등의 잇따른 설화와 문자 파동,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리스크 탓이다.

글쎄, 이름 되면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고 대통령을 걱정하는 꼴이다. 덕 없는 지도자는 국민을 서서히 죽게 만든다. 죽음의 공포를 마주한 국민은 덕 없는 지도자를 받아들이기 힘들다. 윤 대통령이 1%도 안 되는 격조와 정권을 가지게 되었다면, 나머지 절반을 반박하기 위해 정치할 것이 아니라, 예 그들이 자신을 반대했는지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이코노미스트의 지적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社說 광주민주화운동 산실 '봉심정' 복원의 당위성

광주시 남구 봉선동 제석산 자락의 봉심정은 철거 후 임시 건물만 남아 있다. 1970~1980년대 민주인사들이 모여 공부하고 토론했던 곳으로 현대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만큼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운영덕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광주매일신문이 주관해 봉심정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광주의 새로운 정신적 자산으로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민주주의와 광주정신을 교육하며 후대에 전해질 소중한 공간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예의 5·18기념재단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민주화 역사에서 광주를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광주지역 운동에서는 봉심정을 중심으로 형성된 운동권의 활동 행적 역시 버거가는 무게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토론에서도 민·관 합동 방식의 보존과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련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봉심정은 민주화 운동의 태동기를 깊숙이 들여다 볼 수 있는 공간이다. 전봉준 장군의 천안전서 판서공파 제작이었으며 스무살의

청년 김정길 전 광주전남민주연합 상임대표가 정착하면서 역사가 시작됐다. 군사정권의 서슬 퍼런 감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김남주, 윤강욱, 이강, 이학영, 박석무, 박현욱, 정용화, 정상용, 노준형 등 인사들이 수시로 교류하며 유신항쟁의 첫 사건인 합성지, 민청학련, 전남대 교육지표 등 1970년대를 대표하는 투쟁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계승됐다. 봉심정에서 만들어낸 열사들의 노력을 발굴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전파할 가치가 충분한 셈이다. 민·관이 함께 손잡고 흔적만 남은 공간을 되살려야 하겠다. 윤 의원도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본보는 당시 봉심정과 인연을 맺었던 인사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집중 조명, 호응을 얻고 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2030세대들에게 봉심정이 필요하다. 즉각 복원하고 지속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 아카이브 작업을 병행하며 민주역사기념관·공원 조성도 긍정 검토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현재진행형의 숙제다. 민주화를 태동했던 봉심정이다. 지금부터라도 공론화해야 한다.

에타 조기 통과한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전남도가 정부에 최초 제안해 유치한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해남군 삼산면에 들어서며 2023년 기본·실시설계비 21억원(국비)이 반영돼 착공, 2026년 운영이 목표다. 민선8기 지역 위상 제고에 물론 경제 성장 동력 확보에도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는 글로벌 현안인 기후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업 분야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 컨트론타워 기능을 수행한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감축하기로 결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등 제생에너지원 확충을 위한 정책 지원 역할도 맡는다.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생산 8천722억원, 부가가치 3천896억원, 취업 1만426명, 고용 유발 7천445명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설립하는 국책기관인 센터는 총사업비 4천79억원 규모로 지난해 8월 공모를 진행했으며, 해남이 최종 선정됐다. 이후 11월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서 에타 대상사업으로 결정됐다. 수행 기관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고, 전남도는 올해 상반기 조기 통과를 위해 총력 대응해 왔다. 특히 '전남을 빛낸 올해의 시책 TOP10' 종합평가에서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유치가 1위로 뽑히는 등 주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사기도 했다.

전남도는 해남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함평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장성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 무안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고흥 아열대중심스마트팜 혁신밸리 등 기후변화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 균형발전에 기여할 방침이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이 전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전남이 환경친화적 미래 농업을 실천하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인 기대감이 크다. 김영록 지사의 의지대로 농생명산업 중심지인 전남에 대한 민국 농업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다. 착공부터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

기고



오득실

전남산림자원연구소장

무궁화, 관심과 사랑으로 영원히 피어나길

대에 최세진의 '사성통해'를 통해 최초로 한글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무궁화는 우리나라 국가인 '애국가'와, 외국에 보내는 공문서나 국가의 중요한 문서 등 나라 문장, 대통령 표창, 국회의원 배지, 법원마크, 경찰 계급장, 모범음식점 안내판 등 우리 생활 속 곳곳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온전히 무궁화에 대한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문화를 말살하기 위해 나라꽃인 무궁화를 없애려고 갖은 방법을 동원했다. '무궁화가 진딧물이 많고, 지저분한 꽃이며 만지기만 해도 부스럼이 난다'는 등 안좋은 이미지를 심어줬고 무궁화나무를 없애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해마다 8월이 되면 전국 나라꽃 무궁화 축제를 통해 각 도에서 키운 무궁화 우수 분화를 전시해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온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축제의 장이 펼쳐진다. 이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각 도에서 키운 무궁화 우수 분화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 평가단이 심사에 순위를 매기고 시상하는 것이다. 올해 전남도는 단체 부문 '대상'(대통령상)과 개인 부문에서 함평군 정천수씨가 '최우수상'을 모두 휩쓸어 최고의 성적표를 받았다. 이번 수상을 통해 도민들이 무궁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산업적 활용방안 강구해야

무궁화는 동의보감에 기록된 약용식물이기도 하다. 나무껍질과 꽃을 달여 기관지염, 장염, 이질, 치질, 복통 치료를 위해 복용했고 씨앗은 볶아서 가루를 내 기침, 가래, 편두통에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아직까진 무궁화를 이용한 체계적인 기능성 분석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지만 실제 동남아시아에서는 붉은 무궁화라고 하는 히비스쿠스가 고급차로 활용돼 판매되고 있다. 우리 무궁화 중 흰색의 무궁화 꽃 추출물에 '사포나린'이란 항산화 물질이 있는데 골다공증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무궁화의 '세라마이드'라는 성분을 활용한 화장품도 개발하고 있다.

이처럼 앞으로 무궁화 기능 성분을 찾아내고 효능에 대한 연구를 추진한다면 식·의약 분야 등 산업적 소재로 충분히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며 무궁화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아이들에게 무궁화 사랑 정신 함양을 위해 가정에서도 1그루 씩 만면 한다.

독자투고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 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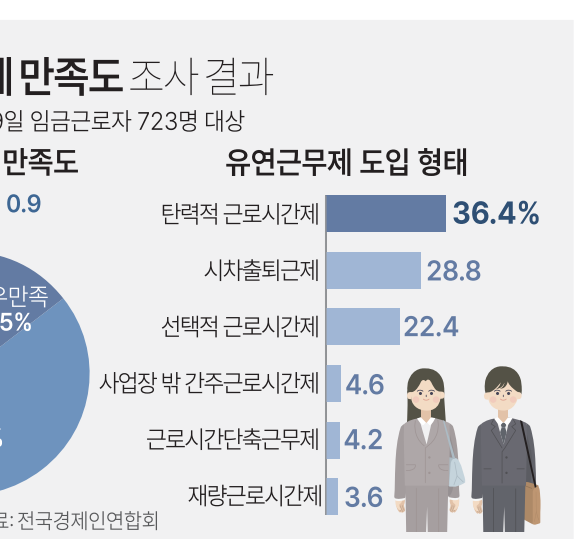
그래픽 뉴스

유연근무제 활용 10명 중 7명 "워라밸 개선됐다"

유연근로시간제(유연근무제)를 활용 중인 근로자 10명 중 7명이 이상이 생산성이 향상되고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임금근로자 7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연근로시간제 활용현황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9일 이메일 방식으로 실시됐다. 전경련에 따르면 유연근무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한 응답자의 73.3%는 현행 근무제 시행에 만족하고 있다고 답했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4.0%에 그쳤다.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형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36.4%)였고 이어 시차출퇴근제(28.8%), 선택적 근로시간제(22.4%),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4.6%), 근로시간 단축근무제(4.2%) 등의 순이었다.

유연근무제가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감축시키는 데 효과적이냐는 질문에는 대상 응답자의 66.6%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7.6%였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에도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압도적이었다. 유연근무제로 일하고 있는 응답자의 74.3%는 이러한 근무제 시행 이후 워라밸이 개선됐다고 답했는데 이는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4.8%)의 15.5배에 달했다.



뱀에 물렸을 때 응급처치법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돼 등산, 캠핑, 낚시 등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뱀을 보고 신고하거나 뱀에 물려 병원을 방문해 치료하는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 서식하는 독사들의 독은 혈액에 작용하기 때문에 물렸을 때 곧바로 응급이벤트 독이 빠르게 몸에 퍼져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뱀에 물렸을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는 먼저 독사를 물린 부위보다 심장에 가까운 쪽으로 10~15cm 상방을 옷가지나 손수건 등으로 가깝게 묶어 혈액순환을 차단해야 한다. 너무 강하게 묶으면 동맥의 흐름까지 차단돼 조직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손가락 한 개가 들어갈 정도로 묶어야 한다.

혈액순환을 차단한 후 30분에 한 번씩 풀어서 혈액을 순환시켜줘야 한다. 이후 물린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유지해야 하며, 흥분하거나 신체적 활동을 자제해 독이 퍼지는 것을 지연시켜야 한다.

반지나 손목시계 등을 제거해 물린 부위가 부어올라 혈액순환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환자에게 먹거



나 마실 것을 주는 것은 삼가야 하며 상처 부위는 얼음이나 찬물, 알코올은 뱀의 독을 더욱 쉽게 퍼지게 할 수 있으니 피해야 하는 행동이다.

TV나 영화처럼 상처 부위의 독을 입으로 빨아내는 행동은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빨아들인 사람의 입안의 상처가 있는 경우 감염되거나 독이 흡수될 수 있어 위험하니 절대 하면 안 된다.

뱀에 물렸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병원에 가는 것이다. 뱀에 물린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병원에 긴급 후송돼야 한다. 병원에 도착하면 의료진에게 물린 뱀의 모양, 색깔, 특징 등을 잘 기억해 설명하거나 사진이 있다면 보여주는 것도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뱀에 물렸을 때 응급처치 방법을 우리 모두가 미리 숙지하고 안전한 야외활동 즐기길 바란다.

(정은주·담양소방서담양119구조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

요즘 들어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지만, 아직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시 경보음을 울려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초기 화재시 소방차량 대만공급의 진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소화기 등이 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시 경보 및 음성으로 화재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에 화재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 또한 소화기는 화재 발생시 초기 진압에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 주택용 소방장비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라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와 같은 일반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택에 발생한 화재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통한 예방 및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초기 화재시 소방차 1대보다 더 큰 위력을 가지



며 그만큼 주택용 소방시설로 초기대응을 하는 것이 소방관이 오기까지 시간을 벌 수 있는 중요한 의미라는 뜻이다.

따라서 주민들이 주택용 소방시설을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점검 방법을 알려주려 한다.

소화기의 점검 방법은 소화기의 압력 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는 폐기토록 하며, 주택화재 경보기는 작동점검 버튼을 눌러 확인하면 된다.

특히 주택용 화재경보기의 경우 1만원 안팎의 저렴한 설치비용에 새벽 등 취약 시간대 화재 발생을 알려줘 인명피해 발생을 막는데 큰 효과를 지니며, 반드시 필요하다.

이처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실천했으면 좋겠다.

(최원형·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